

한국영화 '빅4' 여름 극장가 접수

부산행·덕혜옹주 등 대작 잇따라 개봉

8월 성수기 극장 점유율 70% 돌파

제임스 본 등 할리우드 영화 기대 못 미쳐

연중 극장가 최대 성수기인 8월 상·중순 보름 동안 한국영화 관객 점유율이 70%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극장을 찾은 관객 가운데 10명 중 7명이 한국영화를 봤다는 의미다.

16일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의 국적별 관객 점유율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15일까지 한국영화 관객 점유율은 70.2%로 집계됐다. 미국영화는 26.1%, 일본영화는 3.1% 등의 순이었다.

최근 5년간 8월 성수기(1~15일) 한국영화 관객 점유율을 보면 2012년 67.0%에서 2013년 79.4%로 뛰어오른 뒤 2014년 83.0%까지 치솟았으나 지난해에는 59.6%로 내려앉았다.

올해 관객 점유율이 반등하며 70%를 돌파한 것은 '부산행'(7월20일 개봉), '인천상륙작전'(7월27일), '덕혜옹주'(8월3일), '타닐'(8월10일) 등 한국영화 대작 4편이 잇달아 쏟아지며 극장가를 점령했기 때문이다.

광복절 연휴 기간 한국영화 4개 작품의 스크린 점유율은 53.1%, '국가대표 2'까지 포함하면 62%에 달한다.

이 가운데 가장 먼저 개봉한 '부산행'은 1100만 관객 동원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며 현재 역대 한국영화 흥행 순위 11위에 랭크됐다.

올여름 한국영화에 맞설 할리우드 영화 기대작으로 '제이슨 본'과 DC코믹스 악당들의 활약을 그린 '수어사이드 스쿼드'가 꼽혔으나, 예상보다 위력을 발휘하지는 못한 점도 한국영화의 관객 점유율을 끌어올리는데 일조했다.

주연인 매트 데이먼의 내한 홍보에도 '제이슨 본'은 256만명을 불러모으는 데 그쳤고, '수어사이드 스쿼드'는 개봉 후 혹평 속에서 183만명을 동원했다.

지난해의 경우 '쌍천만 영화'를 달성한 '암살'(7월 22일 개봉)과 '베테랑(8월 5일)'이 시차를 두고 선보이며 극장가를 점령했지만, 이 외중에 할리우드 영화 '미션임파서블: 로그네이션'(7월 30일 ·613만명 관객)이 반격에 나서면서 한국영화 관객 점유율은 50%대에 머물렀다.

최근 5년간 8월 성수기 중 한국영화 점유율이 가장 높았던 2014년을 살펴보면 '명량'(7월30일), '해적: 바다로 간 산적'(8월6일), '군도: 민란의 시대'(7월23일) 등 목격하면 서도 다양한 캐릭터가 등장한 한국영화들이 대거 개봉해 다양한 계층의 관객을 극장으로 끌어들이는데 성공했다.

영화계 안팎에서는 한국영화의 선전을 반기우하면서, 여름 성수기때마다 대작 영화의 독식 현상이 계속되면서 '작은 영화'들이 설 자리가 없는데 대한 비판과 우려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16일 서울 팔래스 강남호텔에서 열린 '이미자 탈세 증거공개 기자회견'에서 공연기획사 하늘소리의 이광희 대표(왼쪽)가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가수 이미자.

“이미자 10년간 출연료 25억원 신고 누락”

공연기획사 하늘소리 측 탈세 의혹 제기

이미자 “직접 계약관계 아니다” 반박

가수 이미자의 탈세 의혹을 제기한 공연기획사 하늘소리 측은 “이미자가 10년간의 공연 출연료 35억원을 10억원으로 축소 신고해 25억원을 누락시켰다”고 주장했다. 하늘소리의 이광희 대표는 16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팔래스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며 “국세청이 이미자 씨의 소득 전체에 대한 탈세 여부를 조사해주시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번 탈세 의혹은 이미자의 공연을 10여 년간 진행한 하늘소리가 “이미자 씨가 공연 출연료를 축소 신고하도록 해 세금을 떠안는 피해를 봤다”고 지난 3일 대구지방국세청에 제보하면서 불거졌다.

이 대표는 “하늘소리가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지급한 공연 출연료 35억원 중 하늘소리 법인 통장으로 지급한 10억원만 신고했다”며 “나머지 25억원은 내 개인 계좌로 이미자 씨의 매니저 권모 씨(2014년 별세)에게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2013년이 소득을 축소 신고한 마지막 해”라며 2013년과 2014년 이미자의 소득신고 자료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3년에는 1억1800만원, 2014년에는 4억

1500만원이 신고됐다.

이에 대해 이미자도 범무법인 태평양을 통해 보도자료를 내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태평양 측은 “이미자 씨는 매니저를 통해 출연료만 수령했을 뿐 하늘소리와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아니다”며 “출연료는 2013년까지 매니저로부터 받았고 2013년 이후부터 하늘소리로부터 직접 받았으며 지급된 출연료는 모두 신고했다”고 선을 그었다.

2013년 이후 출연료를 직접 받은 이유로는 당시 자신의 공연기획사들이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출연료 중 누락된 일부를 파악하고 이를 계산해 자신 신고하면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함이었다고 설명했다.

태평양 측은 또 이 대표가 개인 계좌로 매니저에게 지급한 금액까지 출연료가 모두 35억원이란 주장에 대해서도 “차명 계좌가 아니라 매니저 명의 계좌로, 이 계좌에 공연 관련 대금을 입금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35억원에는 출연료만이 아니라 약단과 무용단 등 공연에 필요한 일체의 인건비와 비용, 매니저의 사업 이익까지 포함돼 이미자 씨와 관련된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2013년과 2014년 소득신고 차이와 관련해선 “이미자 씨의 출연료는 2005년부터 계속 증가했으며 2014년 데뷔 55주년 기념 공연의 흥행으로 상호 합의하에 출연료를 대폭 인상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17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00 여기는 리우 사이클, 레슬링, 배드민턴, 다이빙	00 2016 리우올림픽	00 리우 2016 (레슬링, 배드민턴)
7	50 여름특선 양코르 인간극장	50 리우올림픽 하이라이트	00 MBC 뉴스투데이 20 광주MBC 뉴스투데이 50 2016 리우올림픽 <육상>	00 리우 2016 모닝와이드 15 KBC 모닝와이드 30 리우 2016
8	25 아침마당			30 아침연속극 (사랑이 오네요)
9	30 KBS 뉴스	00 TV 소설 <내 마음의 꽃비> 40 여기는 리우 <육상>		10 리우 2016 <육상>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1	00 KBS 명품역사관 광개토태왕 50 안영 우리말(재)	00 생생정보스페셜	00 주말드라마 <기화만사상>(재)	00 TV블로그 꿈지락 05 위대한 유산 30 민영방송 공동기획 (물은 생명이야)
12	00 KBS 뉴스 12	00 KBS 특별기획드라마 <함부로 애틋하게>(재)	00 MBC 정오뉴스 20 2016 리우올림픽 하이라이트 <뜸 솜 꿈 리우>	00 SBS 12뉴스 20 리우 2016 하이라이트
1	00 2016 리우 올림픽 중계식			
2		00 KBS 뉴스타임 10 세상의 모든 다큐(재)	20 텔레몬스터 25 드림 주니어 스페셜 55 텔레몬스터	00 열린 TV 시청자세상
3		00 자동공부책상 위키2 30 TV 유치원	00 MBC 뉴스 10 헬로킴지 여하 동물탐험대 55 모두모두 쇼	00 닥터 365 05 20106 불리방 농특산물 박람회 고향이 보인다
4	00 4시 뉴스집중	00 다큐멘터리 3일(재)	25 MBC 일일특별기획 <워킹맘 육아대디>(재)	05 위대한 유산 25 TV블로그 꿈지락 30 고향이 보인다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비타민(재)	00 MBC 이브닝 뉴스	00 고향라즈 30 SBS 뉴스퍼레이드 50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사는세상	00 KBS 뉴스타임 20 올림픽 투데이	10 생방송 '빛날'	05 날씨와 생활 10 닥터 365(재) 15 건강한 토크쇼 내 몸을 부탁해
7	00 KBS 뉴스7 35 필통	50 일일드라마 <여자의 비밀>	15 일일연속극 <다시 시작해> 55 MBC 뉴스데스크	15 TV 블로그 꿈지락 20 일일드라마 <당신은 선물>
8	25 일일연속극 <별난가족>	30 여기는 리우 <골프, 배드민턴, 태권도>	55 2016 리우올림픽 <여자골프, 태권도>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영재 발굴단
9	00 KBS 뉴스9			
10	00 2016 리우 올림픽 <골프, 배드민턴, 태권도>	00 KBS 특별기획드라마 <함부로 애틋하게>	00 수목미니시리즈 (W)	00 드라마 스페셜 <원티드>
11	00 KBS 뉴스라인 40 2016 리우올림픽 (카누 K2 200m 등 예선, 준결 승구(남) 준결승1)	10 여기는 리우 <탁구, 골프, 배드민턴, 태권도>	10 2016 리우올림픽 <배드민턴, 여자골프, 태권도>	10 리우 2016 <골프, 배드민턴, 태권도, 탁구>
12				

EBS1			
05:00 EBSe 생활 영어	10:30 한국기행	15:00 모피와 친구들	20:40 다큐 오늘
05:30 건강한 아침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5:10 세계사 시간여행	<레위니옹의 폭포 트레킹>
05:40 세계전문목 아틀라스 (사바이벌 어드벤처)	<최진호의 전복쟁과 우렁피클>	15:20 꼬마철학자 후고	20:50 세계테마기행
06:10 세계의 눈	11:20 세계테마기행(재)	15:35 호기심나리 오기도	<대자연의 환상곡, 노르웨이를 달린다 3부>
07:00 최강전사 미니특공대	<따뜻! 브라질 3부>	15:50 바오밥섬의 파오파오	21:30 한국기행
07:30 주사위 오정 큐비주	아생의 검은 브라질, 살바도르	16:00 출동! 슈퍼왕(재)	<여름의 맛 3부>
07:45 뽀롱뽀롱 뽀로로	12:00 EBS 정오 뉴스	16:30 방귀대장 뽀롱이(재)	22:45 극한직업
08:00 당동당 유치원 1~3	12:1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16:45 당동당 유치원 1~3(재)	23:35 장수의 비밀
08:45 방귀대장 뽀롱이	12:40 지식채널 e	17:30 꼬마버스 타요(재)	<아흔 한 살 사장님은 운동 중>
09:00 출동! 슈퍼왕스	12:45 EBS 초대석	17:45 뽀롱뽀롱 뽀로로(재)	24:05 지식채널 e
09:30 쓰담쓰담 동물원 프렌즈	13:40 사이언스 3 왔다 사총기	18:00 생방송 토크! 보니하니1~4	24:10 EBS 초대석
09:40 라이브 토크 부모	13:50 이팝 스페이스 정글	19:00 레전드하어로 삼국전	
<우리 아이 숨은 키 찾기>	14:00 책과 꿈	19:30 EBS 뉴스	
	14:30 미앤마이로봇	19:50 글로벌 아빠 찾아 삼만리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8월 17일(음 7월 15일 辛未)	
子	48년생 걸으로는 달라 보이지만 실상은 대동소이하다. 60년생 외형까지 손질한다면 훨씬 더 빛나리라. 72년생 말을 듣고 나면 상당한 충격에 빠질 수 있다. 84년생 마음을 뜯겨 가는 즐거움의 일이 보인다. 행운의 숫자 : 17, 26	午	42년생 좀 더 여유를 갖고 자세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54년생 차 마시기 힘든 고민이 보일 것이니 조용히 해결토록 하라. 66년생 충진하는 기세로 크게 변창하리라. 78년생 작은 국면을 넘어 긴 안목으로 임하자. 행운의 숫자 : 29, 47
丑	49년생 조기부터 방향 설정을 잘 해야만 무난할 것이다. 61년생 흥한 기운이 보이니 잘 피해 가도록 하라. 73년생 아직은 때가 이르니 아무 생각 없이 앞만 보고 뛰어 가는 것이 생산적이다. 85년생 승세로 돌아간다. 행운의 숫자 : 56, 33	未	43년생 대상의 선별에 신경 써야만 유지할 수 있느니라. 55년생 앞으로 기회는 많을 것이니 연연하지 마라. 67년생 낮게 책정 하는 것이 지출을 최소화하리라. 79년생 기량을 제대로 발휘한다면 진면목을 보게 되리라. 행운의 숫자 : 05, 82
寅	50년생 제대로 보아야 정확한 형세를 알 수 있는 법이다. 62년생 한 번 마음먹었다면 그대로 조처하는 것이 맞다. 74년생 실속이 없다면 미련 갖지 말고 버려라. 86년생 타의에 좌우되지 말고 의지대로 추진하자. 행운의 숫자 : 52, 06	申	44년생 제대로 파악해야 실수가 없으리라. 56년생 내버려 둔다면 우려하였던 바가 현실화될 수도 있다. 68년생 미진한 점을 보완하고 진용을 정비할 때다. 80년생 양자 사이에서 차신하기 어렵겠다. 행운의 숫자 : 40, 76
卯	51년생 태와 장소에 따라 가변적인 상황이 될 수다. 63년생 초반에 득리하지 않으면 점점 더 어려워진다. 75년생 있어도 없는 것 같고 없어도 있는 듯하리라. 87년생 복잡다단한 난제가 놓여 있도다. 행운의 숫자 : 57, 15	酉	45년생 마주치면서 소리가 날 수도 있느니라. 57년생 할 일이 쌓여 있으니 꼭두새벽부터 서둘러야겠다. 69년생 지내놓고 보면 과정에 불과한 것이니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 81년생 망설이지 말고 속히 결단을 내려야할 때다. 행운의 숫자 : 35, 44
辰	40년생 미래를 위해서 비축해 두어야겠다. 52년생 걸과 속이 전혀 다른 형국이다. 64년생 보지만 말고 직접 해야 하느니라. 76년생 결코 형식에 얽매어서는 아니 된다. 88년생 오래된 문제점 때문에 시달리는 형상이다. 행운의 숫자 : 87, 69	戌	46년생 직관에 따르더라도 무리는 없다. 58년생 여태까지 준비해 왔던 바의 예정대로 진행해도 무방하다. 70년생 사소한 배려를 받더라도 그 효과는 크겠다. 82년생 눈길을 사로잡는 이채로움이 있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68, 34
巳	41년생 나설 때가 되었으니 기민하게 행하라. 53년생 전체적인 국면의 구도에 맞추자. 65년생 남득하기 힘든 현실이 눈앞에 펼쳐지리라. 77년생 적합한 대상과 관련되면서 진전을 보인다. 89년생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행운의 숫자 : 77, 19	亥	47년생 중대한 구도이니 정황에 맞게 도모해야 한다. 59년생 원리를 파악한다면 무리가 없을 것이다. 71년생 뻥하니 예견하면서 도 빠져서는 우를 범하지 마라. 83년생 목표에는 못 미치지겠지만 괜찮다. 행운의 숫자 : 27, 08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